

# 도시한옥의 사용실태에 따른 외관유형에 관한 연구

- 북촌한옥보존지구 비주거용 도시한옥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ternal Appearance Types of Urban-style hanok according to Their Use

- Focused on Non-residential Urban-style hanok  
in the Bukchon Urban-style hanok Preservation District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강사 김도연\*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교수 오혜경\*\*

Division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hee University

Lecturer : Kim, Do-Yeon

Division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Oh, He-Kyung

---

### <Abstract>

The current study proposesto examine the external appearance types of urban-style hanok in the Bukchon Hanok Preservation District according to their use.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field survey from the 12th of September to 10th of October 2005, which investigated the location, condition and use of urban-style hanok that were being used for non-residential purposes. The external elevation of the houses were observed and photograph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158 urban-style hanok used for non-residential purposes and200 cases of non-residential use. There were 69 cases of food and beverage spaces, 58 cases of small retail businesses, 38 cases of cultural facilities and 7 cases of convenience facilities. Second, among residential urban-style hanok used for non-residential purposes, 131 cases changed the external appearance of existing urban-style hanok and only 69 cases maintained the original appearance of urban-style hanok or renovated the appearance fittingly to non-residential use. Among the renovated cases, 59 involved the construction of a firewall and 10 cases involved remodeling in a contemporary style. Among the transformed cases, 40 cases exhibited a full opening to the roadside, 48 involved the change of external appearance components, 14 involved the extension of the courtyard and 12 involved overall improvements to a contemporary style. Third, in the case of cultural facilities and offices, many instances reproduced an urban-style hanok in the traditional style, but small retail shops and food/beverage spaces showed serious deformation. Particularly small retail shops opened the side to the road or extended the courtyard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the houses in order to increase the store space and, as a result, severely damaged the urban-style hanok. In addition, many food/beverage spaces remodeled their external components using tiles, bricks or metals, which were easy to maintain.

---

▲주요어(Key Words) : 도시한옥(urban-style hanok), 외관유형(External Appearance Types), 북촌(Bukchon)

---

\*주 저 자 : 김도연 (E-mail : yeon@khu.ac.kr)

---

\*\* 교신저자 : 오혜경 (E-mail : ohk@khu.ac.kr)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의 통치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통의 의미와 이미지가 상실되거나 훼손되어왔고, 아파트의 대량건설과 국적 없는 일반 건축물의 건설로 독창적인 한국적 도시이미지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전통주거단지를 보존지구로 정하고 지원금을 주며 그 복원을 유도함으로써 전통적 도시이미지를 재건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북촌의 도시한옥들은 이들 보존지구의 중요한 핵심이다. 특히 도시한옥은 경제적인 문제, 용도변경, 개보수에 따른 제반 법규와의 불일치, 유지관리비 증대 등의 이유로 많은 한옥들이 훼손되어 가거나 사라져 감으로서, 기존 한옥지구는 낙후되고 낡은 이미지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주거를 살기가 불편하고 낙후되었다고 무신경하게 헐어버리거나 변경해서는 안되고 우리의 전통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이규목, 1983;28)

특히 북촌과 같이 역사성 있는 장소는 그 의미를 살려야 하는데 단순한 보존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닌 사회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현대의 공간에 계승하는 보존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연계진·최경숙, 1987;103)

북촌에 관한 보존정책은 1976년 민속경관지역<sup>1)</sup>의 지정을 시작으로 1977년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1983년 미관지구지정 등 지나치게 보존을 위한 규제만을 강조하여 한옥은 노후화됨과 동시에 수선이 불법으로 이루어져 그 원형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 후 2002년 5월 '한옥수선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가 공포되었다. 이 지원제도는 외관의 경우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본래의 한옥원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내부에는 큰 규정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수선할 수 있어 최근 몇 년간 비주거용도의 도시한옥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의 한옥이 형체를 잃고 새롭게 신축되고 있다. 신축되고 있는 건물의 모양새는 전통한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형태이며, 이러한 시설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돼 식당, 술집, 노래방 등 영업시설로 사용될 예정이고, '북촌 가꾸기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전통 한옥을 부수고 이 자리

에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있다.(미디어다음, 2005/8/9)

이에 본 연구는 북촌 한옥보존지구에서 한옥이 주거이 외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한 도시한옥의 외관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길에서 보여 지는 한옥의 외관은 프로그램(사용용도)에 따라 어떻게 변형되었으며 변형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앞으로 한옥을 비주거공간으로 수선하거나 개보수 또는 신축 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한옥을 현대생활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한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함이다. 전통적 요소인 한옥에 현대적 프로그램들이 결합되어 현대생활에 맞게 활용한다면 우리 문화의 전통이미지와 생활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도심속에서 도시한옥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고 한옥의 활용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개발방향 및 계획에 대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 지역은 서울의 옛 도성안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옛 주거지인 북촌의 한옥보존지역, 즉 경복궁과 창덕궁, 율곡로와 삼청공원으로 둘러싸인 가회동, 삼청동, 일대의 역사문화미관지구지역으로 한정하고 송현동은 제외한다.<sup>2)</sup>

분석대상은 현장답사<sup>3)</sup>를 통하여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한옥으로 한정하였다.

####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현장조사로 조사원이 지번약도와 한옥실측 도면집에 나와 있는 북촌 지도<sup>4)</sup>를 가지고 비주거용<sup>5)</sup>으로

2) 과거 북촌지역의 범위는 지금의 인사동이 위치한 지역과 경복궁과 창덕궁사이의 주거지 모두를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율곡로 북측으로 삼청공원 이남지역과 삼청동길과 원서동길 사이의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는 도시한옥의 주거지와 도시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3) 송현동은 미 대사관 직원숙소와 학교만 있어 실질적으로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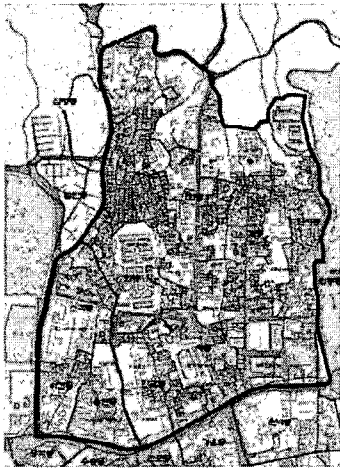
4) 2005년 9월 12일부터 2005년 10월 10일 까지 약 한달간 실시하였다. 조사당시에는 비주거한옥으로 사용되던 한옥이 몇주뒤에 철거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한옥들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조사 시기를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5) 2001년 향측도를 기본으로 작성한 북촌지도로 지붕의 모양으로 도시한옥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6)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비주거용 도시한옥은 주생활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한옥을 제외하고 주생활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한옥을 말한다. 주생활을 위한 공간과 다

1) 도성내 민속경관지역조사연구(서울시 1976)에서 조사대상 한옥의 건축연대를 1950년대까지 확장하여 전통적인 한옥의 모습을 잘보존하고 있고 보존함으로써 전통문화연구에 도움을 줄만한 것을 대상으로 삼는다 라고 밝히고 있다.

사용하고 있는 한옥의 위치와 상태, 용도를 표시하고 외부 입면의 관찰조사와 사진촬영에 의하여 진행하였다. 한옥구조, 지붕 등의 훼손이 심각하여 한옥 여부가 구분이 안 될 경우 북촌지도의 한옥 표시를 참고하였으며, 새로 신축된 한옥의 경우에도 용도를 표시하였다. 서울시 한옥지원 조례에서는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로써 한식기와의를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이고, 한식기와의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까래를 얹은 지붕구조를 한 경우를 한옥으로 여기어 조사하였다<sup>7)</sup>. 또한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기념관등으로 사용되는 한옥은 제외하였고, 소위 '개량한옥', '개량형 한옥', '집장사 집'이라고 불리 우는 도시한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림 1> 북촌 한옥보존지구의 조사범위

한옥외관의 변형은 한옥디자인요소에 관한 선행연구<sup>8)</sup>를 참고로 하여 대상지역 비주거한옥의 현지관찰조사 및 사진판독에 의해 외관을 분류하였다. 외관분류기준으로는

큰 목적을 위한 공간이 공존하는 한옥일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단 개인작업실일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작업공간을 활용한다면 본 연구에 포함하였으나 개인의 취미활동을 위한 작업실은 제외하였다.

- 7) 몇몇 사례에서 기존의 한옥구조에 기와지붕을 없애고 아스팔트성글을 사용하거나 양식기와의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 8) 서울특별시(1985), 한옥지구도시시설계획연계진·최경숙(1988), 서울시 한옥지구내 건축물의 특성 및 보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권 5호 윤효진(1995), 도시형한옥의 외관유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7호 전태준(1986), 서울시 한옥보존지구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기초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최지연(2004), 1930-1960년대 서울 도시한옥의 안마당 입면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①지붕 ②간판 및 차양유무 ③처마의 증축 ④외벽 ⑤재료 및 재질 등으로 나누어 비주거 도시한옥의 외관유형을 분류하였고 도시한옥의 장식화<sup>9)</sup>는 분류기준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주거 도시한옥의 외관유형을 분류한 이유는 비주거 도시한옥은 한옥의 외관을 부분적으로 변경하거나 인용하면서 내부공간을 용도에 맞춰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도로에 면한 외관의 형태로 건물의 표정이나 성격을 나타나 준다. 따라서 도시한옥의 외형적 측면에 접근하여 용도를 변경시 사용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서 환경을 바꾸어 왔는지 살펴본다면 상업공간에 알맞은 현대적 도시한옥의 방향제시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II. 비주거용 도시한옥의 사용실태에 따른 외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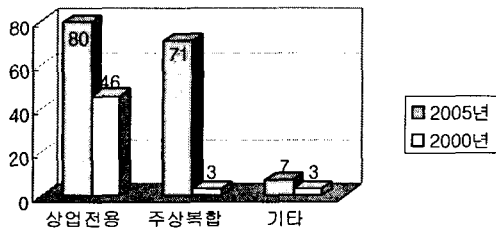
### 1. 비주거용 도시한옥의 사용실태

#### 1) 비주거용 도시한옥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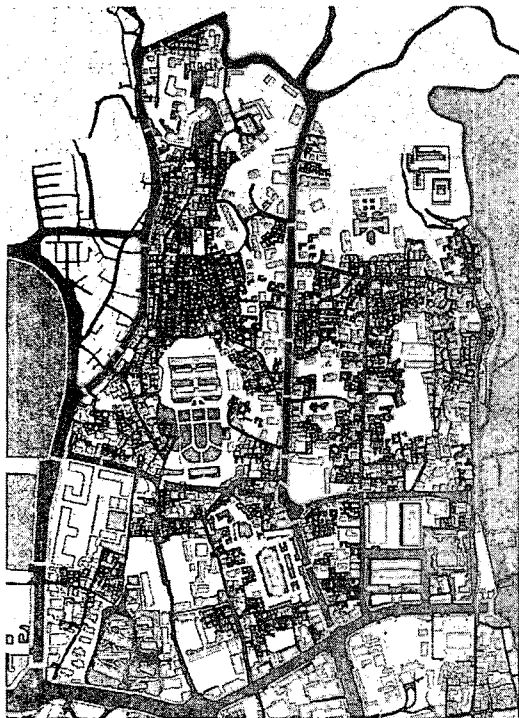
북촌지역 도시한옥의 수량은 1985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1985년 전체의 55.1%였던 한옥은 2000년 이후 41.2%(947동)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남아 있는 한옥조차 모두 양호한 상태가 아니라 한옥본래의 구조가 훼손되어 보존상태가 불량한 한옥도 34.5%인 것으로 나타났고, 40%는 보통상태이며, 25.5% 만이 양호한 한옥으로 나타났다. 이들 947동의 한옥 중 95%가 주거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5.5%인 52동 정도의 한옥만이 비주거용, 즉 상가, 주상복합, 사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48~57)

북촌 가꾸기 운동이 시작된 2005년 현재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옥은 158동<sup>10)</sup>으로 2000년의 조사와 비교해보면 거의 3배 이상 증가한 숫자이다.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한옥들이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전환하였기 때문이다.<그림 2>

- 9) 색채나 문양, 구조채의 결구방식(겹처마사용, 딱지소로의 사용) 등은 조사 분류기준에서 제외하였다.
- 10) 아키반 건축사무소의 경우 가회동 11-16, 11-38번지의 한옥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주거용 한옥 1동으로 보았으며, e-민음치과의 경우도 2채의 한옥을 하나로 사용하고 있으나 1동으로 보았다, 최근 한동의 한옥을 개보수한 후 이웃한 한옥까지 매입하여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까지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어 이런 경우 모두 한 동으로 보았다. 따라서 실질적인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옥의 동수는 더 늘 것이다.



<그림 2> 비주거용 도시한옥의 용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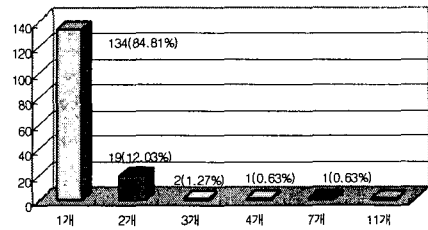
<그림 3> 북촌 한옥보존지구 비주거 도시한옥현황

이들 비주거용 한옥 중 순수 상업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는 80동(50.63%)으로 나타났고, 주상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71동(44.94%)으로 나타났다. 상업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한옥전체를 개·보수하여 상업용도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주상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도로변에 면하고 있는 문간채나 대문채를 상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안채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비주거용 도시한옥의 상점 및 점포 수

비주거용한옥의 사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비주거용한옥에 포함된 상점 및 점포수를 조사하였다. 158동의 한옥 중에서 24동은 한 지번의 한옥에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대문간채를 모두 상업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11개의 상점이 들어선 곳도 있어 총 비주거용 사용실태는 200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한 채의 한옥을 하나

의 용도로 사용하는 곳은 134동<sup>11)</sup>이었다.



<그림 4> 비주거용 도시한옥의 상업 공간 점포수

이들 도시한옥의 공간사용방법은 작은 규모로도 점포사용이 가능한 판매 공간일 경우 대부분 1칸(기둥과 기둥사이)으로 공간을 구획하고 테이블이 필요한 식음료공간은 2칸으로 구획되어 있다. 점포수가 여럿인 한옥의 경우 상점 규모는 소규모이며, 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주도로나 간선 도로 쪽에 위치한 대형한옥이었다.

<표 1> 비주거용 도시한옥의 사용용도 분류

분류	소분류	사례수(%)
근린 생활 시설	소규모 판매시설 슈퍼마켓, 소규모상점, 편의점, 식료품, 문구, 의류, 선물가게, 잡화 및 약세사리	34(17.0)
	생활 서비스 각종 수리점, 옷수선, 서적, 사진관, 미용실, 부동산, 방앗간	15(7.5)
	전문상점 의류(개인샵), 한복전문점, 귀금속, 용기, 그릇, 디자인 상품 등 특성화 전문화된 상점	9(4.5)
식·음료시설	소규모 음식점, 일반음식점, 카페, 호프	68(34.0)
생활 지원 시설	노유자 시설 및 학원 노인정, 유치원, 탁아시설/보습학원, 취미학원, 서당	2(1.0)
	의원시설 의원, 치과, 한의원	2(1.0)
	기계 정비소, 카인테리어, 공구, 이삿짐센터	2(1.0)
문화집회시설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공방, 게스트하우스	38(19.0)
기타	업무시설 공공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 개인사무실 포함.	22(11.0)
	종교시설 사찰, 승방, 교회, 민간신앙	6(3.0)
합계		2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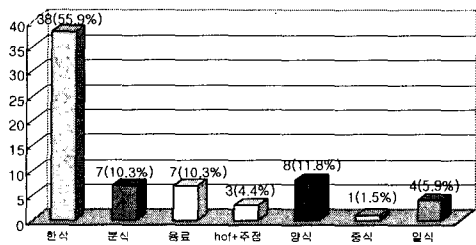
11) 주상복합의 경우 주거+1개의 상업인 경우는 1개의 비주거용한옥으로 분류하였다.

3) 비주거용 도시한옥의 사용용도

사용용도는 건축법에서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표 1>과 같이 근린생활시설과 식·음료시설, 생활지원시설, 문화집회시설,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북촌도시한옥지구에서는 식·음료시설이 68사례(3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근린생활시설이 58사례(29.0%)로 나타났다. 이중 식음료시설은 <그림 5>와 같이 7종류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은 것은 한식이다.

한식당은 대부분 기존의 공간만으로는 부족하여 한옥의 마당까지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고급한정식의 경우 한옥을 보존하여 사용하거나 보수하되 크게 변형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5> 식음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한옥

분식당은 판매하는 음식의 단가가 낮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식음료시설 중 한옥의 훼손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 이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찻집이나 커피전문점은 전통 찻집이 2사례, Take-out 커피점이 5사례로 나타났다. 전통 찻집은 한옥의 이미지를 이용한 판매점으로 유지관리가 잘되었고, 커피전문점은 Take-out 할 수 있도록 전면부를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다. 양식당은 8사례가 있었고 이 사례들은 한옥의 외관을 그대로 살리고 내부는 현대적으로 디자인된 특징이 있었다.

근린생활시설 중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사례는 34사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15사례, 북촌지역 전통과 문화적인 특성상 전문화된 상점도 9사례 나타났다. 이 근린생활시설은 주변지역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한옥의 일부를 개조한 소매점이 대부분으로 도로변을 따라 위치하고 있다. 이들 소매업은 한옥의 전통이미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살림채를 안에 두고 도로에 면한 행랑채나 문간채 일부를 개조하여 점포로 사용함으로써 한옥을 유지하거나 보수하고자하는 의지가 없어 한옥의 훼손이 많았다.

문화·집회 시설은 36(18.3%)사례로 나타났는데 이중 게스트 하우스는 4사례, 갤러리+카페는 7사례, 공방(교육+

전시+체험)은 25사례로 나타났다. 이중 게스트하우스나 공방은 한옥수선지원에 의해 개보수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갤러리+카페는 한옥의 구조는 그대로 살리고 내부도 현대적으로 디자인된 양식당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집회시설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북촌을 문화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sup>12)</sup>적 결과이기도 하며, 지역적 특성상 삼청동 일대 및 소격동 일대에 갤러리가 많이 밀집되어 소규모 갤러리들이 삼청동 지역의 한옥을 개보수하여 갤러리&카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시설로는 일반 업무시설과 종교시설이 있다. 업무시설은 22사례(11.0%)로 주로 건축사무소 및 디자인사무실로 사용되었고,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사무실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오히려 건축 및 디자인 사무실보다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사무실이 한옥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였다. 이는 건축가나 디자인사무실들은 한옥자체를 유지보수하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한옥구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컸으며,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사무실은 한옥을 하나의 문화적인 매개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종교시설중 사찰이나 승방,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옥보존상태가 양호하였으나 민간신앙의 경우 훼손된 채로 사용하고 있었다.

2. 비주거용 도시한옥의 외관유형

1) 도시한옥 외관의 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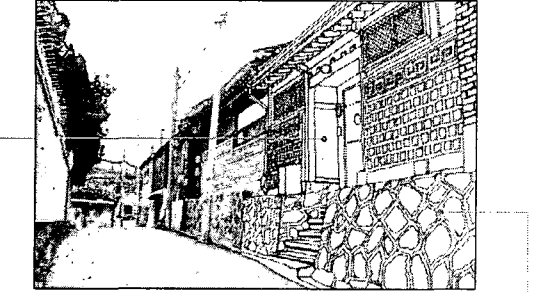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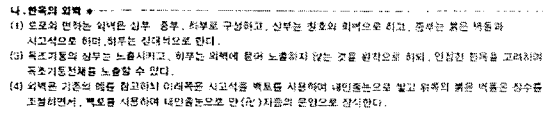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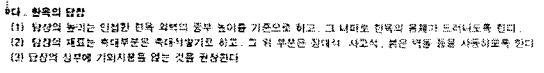
도시한옥의 평면형태는 가로체계와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다. 길의 구조와 대지의 관계가 한옥의 형태를 결정하고 도시가로의 경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 한옥의 경우에는 채와 담장이 분리되어 담장과 대문만이 길 쪽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도시한옥은 대지가 협소한 관계로 대문간채의 외벽이 외관의 입면구성이 된다.

도시한옥은 전통한옥의 발원유형은 아니지만 전통한옥과 형태 및 재료 구축방식이 비슷하여 전통한옥에서 길에 직접면한 행랑채의 도로입면구성방식<sup>13)</sup>과 비슷하다. 전통한옥에 비하면 처마가 짧아지거나 함석의 물받이 차양을 달아 과장된 처마의 표현, 부연의 일반적인 사용, 단순해진 창호문양, 일반화된 유리사용 등의 변화로 인해 지붕의 형태를 해치게 되었지만 외벽은 전통주택과 다를 바 없어

12) 서울시에서는 북촌 골목들을 인사동과 연계해 '전통의 거리'로 지정, 전신주 지하화·도로 단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13) 방화장형식으로 상부는 회를 발라 심벽처리하고 하부는 화장담으로 만들어 아래는 굵은 화장암으로, 중간은 막돌로, 위는 벽돌로 쌓으면서 불록줄눈으로 처리하는 수법이다.(김홍직, 민족건축론 ; 179)

한옥의장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왔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한옥 수선기준은 기존의 도시조직속에서 역사도시경관의 효율적인 보전과 재생을 위하여 외관기준과 내부기준으로 구성되었는데, 외관에 대한 기준은 ①한옥의 지붕 ②한옥의 담장 ③한옥의 문간 ④한옥의 입면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도시한옥의 외관원형을 한옥수선기준에 제시한 외관형태로 기준 삼고자 한다.<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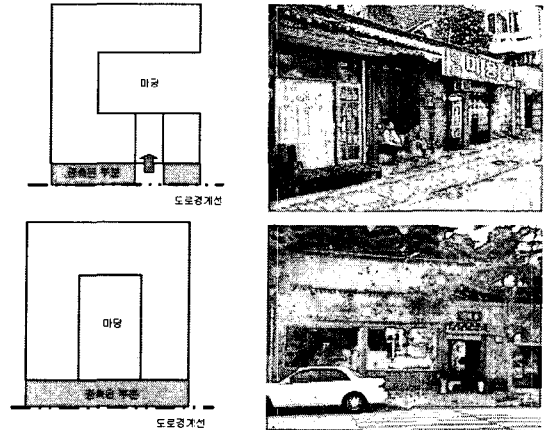
<그림 6> 한옥외부에 대한 수선기준

2) 비주거용 도시한옥의 외관변형

도시한옥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 및 공간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무분별하게 개보수를 진행하여 한옥 고유의 의장적 특징을 훼손하고, 값싸고 저렴한 재료들을 사용함으로써 외관이 훼손되어 그 이미지가 크게 변형되었다.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도시한옥이 비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평면이나, 위생시설, 냉·난방설비, 출입구 등의 변화로 건물외관의 모습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옥수선기준을 참고로 하여 비주거용 도시한옥의 외관변형의 실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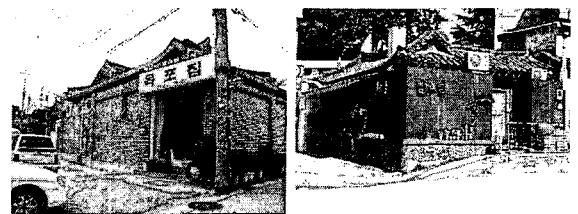
① 증축에 의한 외관변형

증축에 의한 외관변형은 처마끝까지 외벽을 쌓아 증축하는 형태, 도로경계선까지 새로운 전면부를 설치하거나, 축대부분을 이용하는 형태이다.



<그림 7> 도로에서 보이는 지붕의 방향에 다른 증축형태

첫째, 길가 옆에 위치하는 건물의 일부분을 용도 변경하여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내부의 면적을 가능한 넓게 사용하고자 길쪽에 있는 외벽을 처마끝까지 증축하고 있었다. 그 결과 처마끝의 선이 살아나지 못하게 됨으로써 증축된 부분은 한옥 지붕선의미를 손상시키게 된다. 한옥의 처마는 햇빛을 적절히 조절하고 빗물이 벽면에 닿지 않도록 벽체를 보호하며 내·외부를 연결시키는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나 처마끝까지 증축할 경우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팔작지붕의 경우에는 처마곡선(현수곡선)이 양끝에 가서 곡선으로 펼쳐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 증축된 부분의 수평선과 원래곡선이 끝으로 갈수록 벌어져 나타난다.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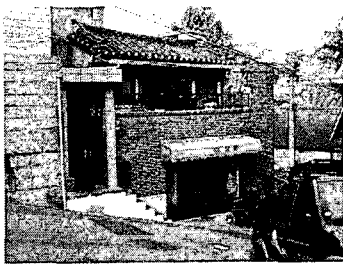
<그림 8> 증축으로 인한 처마곡선 왜곡

둘째, 도로경계선까지 지붕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전면부를 설치하거나 수직의 벽체를 설치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외벽의 형태만으로는 한옥임을 구분할 수 없으며 일반 상가건물과 다를 바 없어 한옥의 외관변형이 가장 심각하였다. <그림 9>



<그림 9> 도로경계선까지 새로운 전면부 설치

셋째, 도시한옥이 경사지<sup>14)</sup>에 위치할 경우 축대를 높게 쌓게 되는데, 이 축대부분을 이용하여 상업공간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다.<그림 10> 이 경우 축대부분뿐 아니라 도시한옥의 외벽까지도 타일이나 붉은 벽돌을 사용하고 있어 지붕을 보고 한옥임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는 1층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하고 그 위에 목구조인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1>



<그림 10> 경사지의 축대부분을 증축하여 상업공간으로 활용



<그림 11> 신축한 2층 한옥

② 간판 및 차양설치에 의한 외관변형

차양이나 간판을 부가시킴으로서 지붕형태의 왜곡이 증대되고 지붕은 보이지 않은 채 오직 간판과 차양만 보일 뿐이다. 외부간판은 처마 밑이나 처마 바로 위에 벽면 간판형으로 부착시키거나 처마 바로 아래 비닐 차양의 설치로 도로면까지 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처마 밑보다 처마위에 간판을 설치한 경우 지붕은 형태는 더 왜곡되어 보인다. <그림 12>



<그림 12> 간판과 차양의 설치로 인한 변형

14) 북촌지역은 정독도서관 이북지역으로 갈수록 동서간의 굴곡이 심한 급경사지이다. 이러한 경사지에 축대석을 쌓아 대지를 조성하고 한옥을 지었다. 축대가 있는 부분의 외관은 축대-장대석-사고석+전돌-회벽으로 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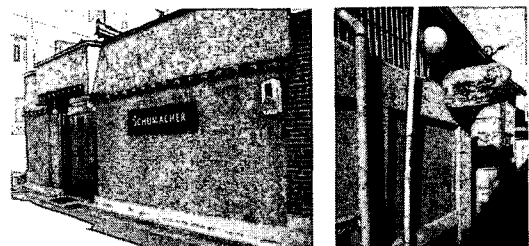
③ 재료 및 재질에 의한 외관변형

기존의 외벽과 담장, 대문에 다른 재료 및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도시한옥의 외관의 변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도시한옥의 외벽은 목재기둥과 회반죽으로 마감되거나 화방벽으로 목재기둥은 노출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가로입면은 담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도로와 경계면이 된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데, 벽체는 값싸고 시공이 간단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즉 알루미늄 샷시에 유리를 사용하여 내부공간을 개방시키거나, 시멘트 몰탈위 페인트 또는 타일로 마감하기도 하며 철판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도로경계선까지 증축할 경우 증축된 부분의 지붕은 콘크리트 슬라브나 P.V.C, 시멘트 슬레이트 등을 이용한 가설 지붕재를 설치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둘째, 기존에 벽돌이나 사고석으로 마감되었던 담장은 페인트칠을 하거나 높이를 조절하고 담장상부의 기와대신 철조망을 설치하기도 하며, 아예 담장을 없애고 기와를 쌓아 놓거나 전통조경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담은 높이와 형태에 따라 한옥의 외관이 잘 드러나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는데 담을 높게 쌓아 한옥외관의 형태는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셋째, 한옥의 입지특성상 막힌 골목에 의하여 골목이 끝나는 부분에 위치한 비주거용 한옥은 대문만 보이게 되는데 이 경우 대문의 규모나 재료, 개폐방식의 변화 등이 나타난다. 대문은 규모가 작게 축소되고, 여닫이에서 미닫이로 목재대신 철재 또는 알루미늄 샷시로 바뀌고 있으며 목조기둥에서 돌기둥으로 개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 담장의 높이와 재료의 변화

④ 진입방식의 변화에 의한 변형

주택으로 사용하는 도시한옥의 경우 향이나 사적인 생활을 더 중시하여 외부도로에서 직접진입하기 보다는 사적인 생활도로로서의 기능이 큰 골목길로 진입동선을 우회한다. 그러나 비주거용 한옥은 사람들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방식이 달라진다. 즉 사람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으로 출입구의 위치가 바뀌고 이러한 출입구의 변화로 외관유형에 변형이 나타난다. <그림 8-a>의 경우 원래 주출

입구는 서쪽이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5동의 한옥도 두 도로변의 북쪽으로 출입구의 위치가 변화였다. 하지만 맞은편의 상가들은 기존의 출입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즉 사람의 통행이 많은 주도로가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한옥의 출입구는 변화한다.



<그림 14> 용도변경에 따른 진입방식의 변화

대부분의 도시한옥은 한 면 이상이 일반사람들의 통행과 이동이 많은 도로에 접하고 다른 한 면은 일반 주거용 생활도로에 접하는데 통행이 많은 주도로에 접하는 한옥들의 용도변경 및 임대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도로변에 접한 문간채를 개조하여 임대한 소규모 상점들은 원래 사용하던 주출입구를 상점의 출입구로 사용하고 주인세대는 새로운 출입구를 만들어 사용한다. 또한 주도로(공용생활도로)쪽이 마당이었던 한옥은 마당을 상업공간으로 사용하고자 내실화하여 증축하고 주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도록 진입방식을 변화하여 내부공간의 변화도 수반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의 대문을 막아 벽으로 마감하고, 마당에 새로 만든 출입구는 쇼윈도우를 겸하게 된다.

3) 비주거용 도시한옥의 외관유형

도시한옥의 외관의 원형과 변형에 대한 몇몇 특성을 살펴본 후 외부구성요소의 조합, 외관이미지등을 고려하여 한옥의 원형과 변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8개의 외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표 2>

도시한옥의 원형은 한옥수선기준에 맞게 개보수가 이루어졌거나 원형이 잘 유지한 경우에는 재현이라 구분하고 이를 다시 전통적 재현과 현대적 표현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인 재현은 59사례(29%)로 한옥수선기준에 맞게 개보수하거나 신축한 한옥에 준하여 분류하였고, 기존의 도시

한옥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이 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현대적 표현은 10사례(5%)로 한옥수선기준에 의해 개보수를 하되 담장과 대문을 없애고, 일부분은 유리를 사용하여 한옥의 구조를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한옥의 외관과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하여 새롭게 해석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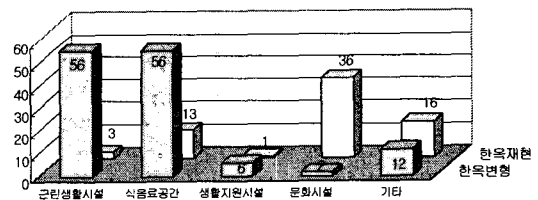
도시한옥의 변형은 입면의 재료나 구조, 형태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로 131사례(66%)로 나타났다. 기존의 목조건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당을 증축하여 상업공간으로 사용하고자 마당 쪽으로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한 마당증축형이 14사례(7%), 전면에 벽을 세우고 커다란 간판을 달아 외관이 현대적 건물처럼 보이는 전면신축형이 12사례(6%), 도로변에 유리를 사용하여 폐쇄감이 아닌 개방감을 준 전면개방형이 40사례(19%),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대문을 현대적으로 개량한 골목입지형이 10사례(5%), 처마선이나 도로경계선까지 증축하여 이질적인 재료로 외관을 변형시킨 외관구성요소변형이 48사례(25%), 높은 축대를 이용한 축대이용형이 7사례(4%)로 도로변 전면개방형과 외관구성요소변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복촌한옥수선지원사업에도 아직까지 한옥의 변형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이미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한옥의 경우 한옥의 일부분을 세를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옥수선지원금 혜택이 별 의미가 없으며, 한옥의 훼손이 심각하고 변형이 심하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도시한옥의 사용용도에 따른 외관유형

1) 비주거용 도시한옥의 용도에 따른 외관유형

한옥 사용용도에 따라 한옥의 변형을 살펴본 결과 근린생활시설(56사례)과 식·음료시설(56사례)로 사용하는 한옥의 경우 한옥의 변형이 심하게 나타났다.<그림 15>







<그림 15> 한옥의 용도에 따른 한옥변형

<표 3>와 같이 공방이나 박물관,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되는 문화시설과 사무실 등이 한옥의 전통적 외부디자인 요소가 보전되어 있는 <유형 I>의 외관형태가 주를 이룬



<표 2> 비 주거용 도시한옥의 외관유형 특성 및 분류기준

유형	사례수(%)	사진	각 유형별 특징
원형의 재현	유형 I 도시한옥의 전통적 재현 59(29)		도로변에 문간채가 위치하고 문간채 외벽이 방화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식으로 외관전체가 전통구성요소로 구성된 형태이다. 주로 사고석+벽돌+창호로 구성되어 있고 사고석 대신 호박돌과 기와를 사용하기도 하며 한옥수선기준에 의하여 최근 개보수된 한옥들이 이에 해당된다.
	유형 II: 도시한옥의 현대적 해석 10(5)		대지면적의 여유가 없어 전통한옥처럼 담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방화장형식이 아닌 회벽을 사용한 건물외벽이 담장을 겸한 형식으로 <유형 I>과 다르게 일부는 전통적 한옥을 재현하고 일부는 현대적 재료나 현대적 방법으로 재해석한 유형이다. 기둥이나 지붕의 구조는 전통한옥과 전혀 다를 바 없으나 일부 외관을 현대적 재료를 사용하거나 담장을 세우지 않고 전면유리를 사용하여 전통요소와 현대가 공존하는 유형이다.
변형	유형 III: 마당증축형 14(7)		진입동의 입지조건에 의하여 측면에 위치한 주출입구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위치한 마당부분을 확장하여 상가용으로 전환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전통한옥의 구조에 마당부분을 RC조로 새로이 신축하여 이 공간을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한옥의 구조가 외부에서는 전혀 노출되지 않으며, 한옥의 지붕만 보일 뿐이다. 외관유형의 모습은 <유형 IV>와 다를 바 없다.
	유형 IV: 전면신축형 12(6)		도로변에 위치한 문간채나 한옥의 외벽에 도로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면부를 만들거나 한옥지붕이 안보이게 수직의 함석판이나 금속판을 덧대 간판을 단 유형이다. 금속판을 덧대기 위해 처마끝까지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와지붕이나 내부공간의 형태만으로 한옥임을 판단할 수 있어 한옥 훼손이 가장 심각한 유형이다.
	유형 V: 도로변 전면개방형 40(19)		도로변에 위치한 한옥의 벽면을 진열장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스테인레스나 알루미늄 샷시로 틀을 짜고 유리를 사용하여 도로변에 지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전면을 개방한 형식으로, <유형 IV>와 다른 점은 한옥의 지붕과 서까래, 부연의 모습을 전면에서 볼 수 있는 점이다.
	유형 VI: 골목입지형 10(5)		도시한옥의 위치가 골목의 말단 끝에 위치하고 있어 대문 등 외관의 일부만 보이는 유형으로 골목 끝 대문의 크기나 개폐방식, 재료등이 변경된 유형이다.
	유형 VII: 외관구성 요소변형 48(25)		좁은 대지면적으로 공간을 좀더 넓게 사용하기 위하여 외벽이 도로경계선까지 확장된 형식으로 한옥의 외벽이나 담장 등 비주거용한옥의 외관 재료가 벽돌이나 타일, 시멘트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으로 변형된 유형이다.
	유형 VIII: 축대이용형 7(4)		한옥건축양식이 상업화 되어지는 과정에 나타난 2층 한옥상가와 비슷한 유형으로 도로와 대지의 높이차로 나타난 축대부분을 상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경사지의 한옥외관은 막돌로 쌓은 듯한 축대부분과 사고석+벽돌+창호로 구성되어 있으나 <유형 VIII>의 경우 축대 뿐 아니라 모든 벽체부분이 벽돌이나 타일로 마감되어 나타났다.

다. 이는 복촌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한옥을 매입하여 공공, 개방, 문화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한옥을 활용할 목적으로 한옥수선기준에 맞도록 보수하였기 때문이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개인이 공방이나 박물관등으로 활용하고자 한옥을 재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복촌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상 전통관련 이미지를 이용한 상품을 판매

하거나 디자인을 제시하는 사무실이나 건축사무소들이 복촌의 도시조직과 도시한옥의 모습을 잘 유지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 비주거용한옥의 용도에 따른 한옥의 외관유형

용도	한옥 유형	한옥의 외관유형							계	
		재현		변형						
		I	II	III	IV	V	VI	VII		VIII
근린생활시설		3	-	9	4	27	-	9	6	58
식음료시설		9	4	4	8	12	5	27	-	69
생활지원시설		1	-	1	-	-	2	3	-	7
문화시설		31	5	-	-	-	-	2	-	38
기타		15	1	-	-	1	3	7	1	28
계		59	10	14	12	40	10	48	7	200



한옥수선기준에 의거하여 한옥의 재현하고 문화시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한옥

<그림 16> 유형 I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유형V>의 형태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슈퍼마켓, 문구점, 미장원, 옷수선, 부동산 등 소규모 판매점이나 생활 서비스시설들로 물건을 직접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옥의 입지에 상관없이 도로쪽으로 개방적이다. 판매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품을 강하게 인식시키고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옥의 기둥을 제외하고 알루미늄 샷시에 투명유리로 마감하여 내부의 물건이 다 보이도록 진열해 놓고 있어 도로쪽 전면은 진열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외부간판은 처마 밑이나 처마 바로 위에 벽면 간판형으로 부착시키거나 처마바로아래 식별성이 높은 비닐 차양을 매달아 직사광선이나 비를 피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한옥의 외부디자인 요소를 더욱더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들은 한옥의 이미지가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한옥을 수선하거나 개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변 한옥을 개방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한옥

<그림 17> 유형 V

식음료시설은 <유형VII>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형V>이 주로 나타났다.



외부구성요소를 변형하여 요식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옥

<그림 18> 유형 VII

<유형VII>은 한옥의 외부구성요소를 관리가 용이한 벽돌이나 타일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유형V>처럼 개방적이지 않아 도시한옥의 폐쇄적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비록 이질적 재료의 사용으로 한국적 분위기와 멋은 손상되었으나 지붕의 훼손율은 극히 적어 다른 변형 유형보다도 도시한옥의 미적인 측면이 잘 유지하고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어 적은 노력으로도 도시한옥의 원형으로 복원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옥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 재료보다는 한옥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한옥의 외부구성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는 외부구성요소의 변형보다도 도로변으로 나와 있는 실외기나 덕트시설 등으로 한옥의 외관뿐 아니라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식음료시설의 경우 설비시설에 대한 기준이 시급하다.



새로운 전면을 만들어 요식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옥

<그림 19> 유형 IV

한옥의 훼손이 가장 큰 <유형IV>의 경우도 식음료시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면 파샤드를 만들어 줌으로써 한옥의 지붕이 보이지 않아 일반 상가건물과 전혀 다름 없고 한옥의 외부구성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이다.

도시한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간판이나 차양등의 설치로 한옥의 전면 디자인요소인 지붕을 가리게 되고 그로 인해 한옥의 구성요소특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음식점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당상부를 슬레이트 등으로 덮어 내부공간화하고 바닥면적을 넓혀 사용하고 있어 한옥의 훼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옥지구내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할

시에는 이에 관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식음료시설에 맞는 전통적 외관디자인 제시가 시급하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촌 한옥보존지구내 도시한옥의 사용실태에 따른 외관유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2005년 9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옥의 위치 및 상태 용도를 조사하고 외부입면의 관찰과 사진을 촬영하여 진행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옥은 158동이며, 비주거용 사용 실태 수는 200사례로 나타났다. 비주거용 한옥의 사용용도는 식음료시설 (69사례, 34.5%), 소규모 판매업 (58사례, 29.0%), 문화시설 (38사례, 19.0), 생활지원시설 (7사례, 3.5%)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용 한옥을 비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131사례가 기존한옥 외관이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69사례의 한옥만이 원형을 유지하거나 비주거용 용도에 맞게 새로이 재현하여 사용하고 있다. 재현된 경우 방화장형식이 59사례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현대적으로 해석한 경우 10사례로 나타났다. 변형된 경우는 도로변 전면 개방형이 40사례(19%), 외관구성요소의 변형 48사례(25%), 마당증축형 14사례(7%), 전면 현대적 개량 12사례(6%)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시설이나 기타 사무실의 경우 도시한옥을 전통적으로 재현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소규모판매점이나 식음료공간은 변형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판매점은 한옥의 입지에 상관없이 도로쪽으로 개방적으로 처리하거나 마당을 증축하여 판매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한옥의 훼손이 심각하며, 식음료공간은 외부구성요소를 관리하기 편리한 타일이나 벽돌, 금속 등으로 개장하여 사용하는 (20사례)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문화시설은 대부분 한옥 수선지원금을 받아 방화장 형식(31사례)으로 꾸며져 있고, 몇몇 갤러리&카페 시설은 프로그램에 맞게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5사례)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용도변경으로 인한 한옥외관의 변형을 막고자 한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어느 정도까지 외관의 유형을 유지할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 또한 각 용도에 맞는 한옥의 방안제시가 있어야 한다. 전통적 재현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는 재해석 방법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보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로변으로 증축하여 외관의 변형이 이루어졌다면 도로변으로 증축된 부분은 철거시키고, 도로에서 보이는 벽체부의 기둥은 남겨놓고 용도에 따라 상인방 아래쪽으로 전면 유리를 설치한다면 한옥의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 모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차양 및 간판등으로 훼손이 된 경우 한옥에 어울리는 편액과 같은 간판으로 교체하거나 벽체부에 맞는 작은 간판으로 대체하고, 전통 들머열개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차양대용으로 사용하면 한옥의 외관훼손을 방지하고 전면유리로 진열장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수납공간의 부족으로 도로변으로 증축을 해야 한다면 벽감처럼 기둥에 부재를 덧대 상인방 아래에 증축한다면 지붕부의 처마나 서까래는 그대로 노출되어 한옥의 외관이 유지될 것이다.

둘째, 증축 등의 이유로 외부구성요소가 변형된 경우는 전통재료와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하고 전통문양 등을 사용하거나, 전통재료를 현대적 디자인감각으로 디자인화 한다면 전통적 이미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재료의 사용도 벽체부에 한정하고 벽체부 전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방이하 또는 중인방이하 등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이미 양옥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이 신축시 1층은 상가전용공간으로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층 한옥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적불명의 한옥이라 부정적 견해를 비추고 있으나 기존의 양옥을 새로이 신축할 경우에 주요도로변에 한하여 허가에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도시한옥은 그 대상물이 훌륭한 건물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경관에 아이덴티티를 주고 있으며, 도시한옥의 외관특성에 따라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북촌한옥지역과 같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도시한옥들은 랜드마크적 요소로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으며 각 한옥의 형성과 배열에 따라 분위기 있는 지역경관을 연출할 수 있어 외관이 특성에 따라 전체 도시이미지는 달라 질수 있다. 따라서 개별 한옥의 보존뿐 아니라 도시한옥군으로서 보존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접건물의 규제 뿐 아니라 비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한옥의 디자인규제를 통해서 도시 한옥군으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시한옥의 외관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외관에 서만이라도 도시한옥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한옥의 개선과 재생과정에서 현대생활에 맞는 21C형 한옥이 지어질 것이다. 이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옥의 전통구성요소를 현대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옥지구전체의 한옥을 조사하지 못하고 비주거공간으로 한정하였으며 외부공간의 사진촬영에 의존하여, 주거용 한옥과의 차이나 내부공간의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하여 전통과 관련된 상품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한옥도 여러 기능을 수용할 수 있고, 한옥의 현대화를 다각적으로 시도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21C형 한옥은 주거기능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인식하여 앞으로 더욱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집 수 일 : 2006년 01월 15일
- 심 사 일 : 2006년 02월 03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2월 08일

#### 【참 고 문 헌】

- 서울특별시(1985). **한옥지구도시설계**.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2004). **북촌**. 서울특별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마을단위도시계획-실현기본방향(2)-, 북촌가꾸기 사례연구**, 서울특별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 **북촌가꾸기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 **북촌가꾸기 기본계획(한옥실측도면집)**. 서울특별시.
- 길현욱 · 이해욱(2002). 현대주거패턴변화에 적응하는 도시형 한옥의 리모델링 설계기법.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 27-30.
- 류춘화 · 박전자(2004). 현대주택 리모델링의 전통성 표현을 위한 한옥 리모델링 사례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4(2), 151-154.
- 우희집 · 윤효진(2001). 서울의 역사적 도심지역에 있어서의 건축유형별 분포 및 이용형태. **대한건축학회발표논문집**, 21(1), 483-486.
- 윤효진(1995). 도시형 한옥의 외관유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7), 131-136.
- 윤효진(1998). 도시형 한옥의 분포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11), 165-171.
- 윤효진(1999). 도시형 한옥의 지역적 특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5(11), 153-160.
- 연제진 · 최경숙(1987). 서울시 한옥지구내 건축물의 특성 및 보전방향에 관한 연구 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4), 77-85.
- 연제진 · 최경숙(1988). 서울시 한옥지구내 건축물의 특성 및 보전방향에 관한 연구 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5), 195-208.
- 연제진 · 최경숙(1989). 서울시 한옥지구내 건축물의 특성 및 보전방향에 관한 연구 I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6), 99-109.
- 임창복(1991). 도시형한옥과 도시주거문화. **대한건축학회지**, 35(2), 57-61.
- 김영수 · 송인호(2005). 북촌 도시한옥의 기둥상부 결구방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11), 170~178.
- 김용기 · 이원호 · 박정선(2005). 북촌한옥마을 주택의 외부공간 특성.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 미디어다음(2005). 북촌한옥마을이 사라진다. 2005. 8. 9. [http://www.visitseoul.net/korean\\_new/hanok/index.html](http://www.visitseoul.net/korean_new/hanok/index.html)
- 송인호(2000). **도시형 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태준(1986). 서울시 한옥보존지구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기초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최지연(2004). **1930-1960년대 서울 도시한옥의 안마당 입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이규목(1993). 도시의 장소성을 찾아서. **건축가**, 5-6월.